

문법은 해석

---

해석과 독해가 안되는 이유와 해결책

---

독해학교

---

## [문법은 해석] 핵심 강의 내용 요약

---

1. 해석 정복을 위한 핵심 지식 네 가지
  2. 완전한 술어 묶음의 해석
  3. 동사 usage 핵심 정리
  4. 해석과 독해가 안되는 이유와 해결책
-

---

## 해석과 독해가 안되는 이유와 해결책

---

1. **네 종류 글의 난이도 비교** - 가르치는 사람이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든, 지문이 어렵다 혹은 지문의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문 난이도** 혹은 **지문 수준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2. **지문이 어렵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 - 지문에 **추상명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글의 내용이 애매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지문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3. **지문이 어렵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 -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위축되고, 생각을 멈추어 버립니다. 아니 눈을 감아버리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4. **지문이 어렵다고 느끼는 세 번째 이유** - 수준이 높은 글은 구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문에 포함된 문장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내용 구조가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지문에 포함된 문장의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지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석과 독해가 안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5. **해석이 안되고, 그래서 독해가 안되는 이유와 해결책** - 포함된 정보가 많아서 **구체적**이면 문장이 길어지고, 내용 구조가 복잡 해집니다. **의미뭉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해석조차 되지 않습니다. 해석조차 되지 않으니 지문에 대한 독해도 어려워집니다. **구문 패턴**을 암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네 가지의 미뭉음** 파악 능력 향상에 집중하세요.
-

---

## 네 종류 글의 난이도 비교

---

1. 가르치는 사람이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든, 지문이 어렵다 혹은 지문의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문 난이도** 혹은 **지문 수준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

# 1

아래 글은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한 문단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 동아 중2 교과서의 문단

Second, Matisse's painting has many details. In Matisse's painting, there are only Icarus and some stars. Furthermore, Icarus' body has just a simple outline. In contrast, Chagall painted many people and houses in addition to Icarus.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painting styles of the two painters.

그나마 교과서 중에서 지문이 어렵다는 영어 2 교과서의 문단 하나를 살펴볼까요?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나요?

## 능률 영어 2 교과서의 문단

As you can see, creative thinking has the power to make many positive changes to the environment. By giving old products more value, we can lessen the amount of waste in a way that is even more eco-friendly than recycling. So what would you say to Jamie now as he decides what to do with his cans? Perhaps he could epicycle them to make lanterns, toys, or sculptures for his friends and family. The options are endless, and all he needs is a little creativity to think of them. In the same way, stop and think before you throw something out. Who knows? Maybe you can turn that trash into treasure.

여러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문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나요? 물론, 모르는 단어가 많다, 적다는 기준은 제외하고 생각해보죠. 어차피 단어 암기는 계속 할테니까요. 또 한, 문맥을 바탕으로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 2

수능 영어 지문의 난이도를 이전에 언급한 두 가지 글과 비교해보죠. 지문이 어렵다는 느낌이 드나요?

## 2022 수능 영어 독해 지문

Precision and determinacy are a necessary requirement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and progress in the sciences is, to a large extent, the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But historical representation puts a premium on a proliferation of representations, hence not on the refinement of one representation but on the production of an ever more varied set of representations. Historical insight is not a matter of continuous “narrowing down” of previous options, not of an approximation of the truth, but, on the contrary, is an “explosion” of possible points of view. It therefore aims at the unmasking of previous illusions of determinacy and precision by the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s, rather than at achieving truth by a careful analysis of what was right and wrong in those previous representations. And from this perspective,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 may indeed be regarded by the outsider as a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a continuous questioning of \_\_\_\_\_, rather than, as in the sciences an ever greater approximation to the truth.

내친 김에 미국 수능 시험인 SAT의 reading section에 포함된 paragraph도 살펴보세요. 수능 지문과 비교해서 난이도나 수준이 어떤가요? 주요 미국 대학교들은 학생들이 대학교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 SAT 시험 성적을 요구합니다.

## SAT Reading Passage에 포함된 paragraph

The nineteenth-century moralist’s view on deception was that in general any violation, no matter how small, of the dictates of one’s conscience was dangerous. The small lie makes room for the bigger one, which makes room for theft, which makes room for robbery, which makes room for murder. The rapid descent down the slippery slope starts with a minor infraction. The model may be flawed-I know chronic liars who, as far as I know, show no inclination toward progressing to murder-but certainly the impulse to deceive in order to succeed can become as much a habit as suspiciousness or greed, and once it has become routine, conscience is no longer an issue. Lying can become habitual in dealing with others while the moral sense in charge of hindering it atrophies. The loss of conscience is probably not mourned by anyone who functions without it, but those who have lost the faculty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have been deprived of a humanizing feature and have suffered an impoverishment of their moral life.

---

## 지문이 어렵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

---

2. 지문에 **추상명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글의 내용이 애매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지문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 1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목되는 지문 중의 하나입니다.

## 2022 학년도 수능 영어 [23]

Scientists use **paradigms** rather than believing them. The use of a paradigm in research typically addresses related problems by employing shared **concepts, symbolic expressions**,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tools and procedures, and even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s**. Scientists need only understand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in ways that others would accept. These elements of shared **practice** thus need not presuppose any comparable **unity** in scientists' beliefs about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use them. Indeed, one role of a paradigm is to enable scientists to work successfully without having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what they are doing or what they believe about it. Thomas Kuhn noted that scientists "can agree in their **identification** of a paradigm without agreeing on, or even attempting to produce, a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ation** of it. Lack of a standard interpretation or of an agreed **reduction** to **rules** will not prevent a paradigm from guiding research."

지문 곳곳에 우리말로 바꾸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추상명사가 등장합니다. 추상명사의 해석은 어렵습니다. 해당 되는 우리말 단어가 **한자어**인 경우가 많고, 추상명사가 내용의 "**일반화**(generalization)"를 위한 용도로 쓰인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그런데 말입니다. 글쓰기가 바보는 아니죠. 그리고 자신만 읽고 간직하기 위해서 글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글은 여러분의 시험에 지문으로 결코 출제 되지도 않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은 반드시 구체화 해놓습니다.** 구체화 해놓은 내용을 여러분이 놓친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지요(그 이유는 마지막 페이지에 등장합니다).

빨간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상명사를 구체화 해주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구체화 된 내용에 의해서 추상명사가 포함된 문장들이 전달하려는 정보를 파란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두었습니다.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 대상인 paradigm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설명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paradigm이나 다른 추상명사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use, shared, same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 되어 가는 과정을 잘 쫓아가보세요. 결국, 글쓰이는 연구와 관련된 용어, 방법, 이론 체계 등을 포함한 공유된 연구 기반 혹은 토대(paradigm)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한 가지를 부각시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research paradigm이 제공하는 기능이라는 주장도 함께 말이죠.

Scientists **use paradigms** rather than **believing them**.

The **use of a paradigm in research** typically addresses related problems by employing **shared concepts, symbolic expressions,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tools and procedures**, and even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s**.

[paradigm의 구성 요소 + “shared”와 “same”은 이 문장 이후에서 구체화 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

Scientists need only understand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in ways that others would **accept**.

[과학자들이 paradigm을 공유해서 사용한다]

These elements of **shared practice** thus **need not presuppose any comparable unity in scientists’ beliefs about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use them**.

[shared practice의 장점을 구체화. 공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편리함을 줌]

Indeed, one role of a paradigm is to enable scientists to work successfully without having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what they are doing or what they believe about it.

[지문에서 주장하려는 paradigm의 기능 혹은 paradigm 사용의 장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 - 공통 기반 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등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할 필요가 없음]

Thomas Kuhn noted that scientists “can agree in their **identification** of a paradigm without agreeing on, or even attempting to produce, a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ation** of it.

[Kuhn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글쓰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구체화. 같은 paradigm에 속하는 concepts, symbolic expression,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tools and procedures, and even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s를 사용하므로. Kuhn을 인용. 공유된 paradigm 사용의 장점에 대한 그의 생각도 같다]

Lack of a standard interpretation or of an agreed **reduction to rules** will not prevent a paradigm from guiding research.”

[공유된 paradigm 사용의 장점을 계속 구체화. paradigm 사용의 결과로 초대 되는 상황 또 한 연구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 지문이 어렵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

---

3.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위축되고, 생각을 멈추어 버립니다. 아니 눈을 감아버리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

# 1

Heidegger에 관해서 아시나요? Heidegger 철학의 핵심인 “Dasein”에 관해서 아시나요?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EBS 교재를 연계해서 출제하겠다는 제도가 만들어 놓은 커다란 폐해 중의 하나입니다.

Heidegger used the term *Dasein* — “being there” — for the being that exists. He rejected the idea that there is an external world separate from a conscious observer. Instead, he developed a *phenomenological view*, in which our understanding of things is always in relation to ourselves. For example, if you put on a jumper, it is because the jumper will keep you warm, or you think it will look good on you. It is not because the jumper is made of twisted yarn and is a few millimeters thick. This applies to knowledge, too. We might read a book about politics because it interests us, or because understanding politics helps us make sense of what we see happening around us. We see it in terms of a tool, or satisfying a need. Heidegger saw the *Dasein* (principally the human “being”) as completely immersed in and part of the world that defines it. No separa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environment is possible. “Being *there*” means that “there” — our context — is the defining aspect of “being”. We are not shut off from the world in an enclosed mind — which Heidegger calls the “cabinet of consciousness”.

우리가 독해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지문은 전문가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닌, **전문가가 비전문가인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므로, 독자를 이해시켜야 할 내용에 필요한 **배경지식**은 항상 제공한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전문가인 독자가 글쓴이의 의도 및 그에 따라서 설명하거나 주장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자신 이외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지, 자신이 잘 간직 하면서 두고 두고 읽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니니까요.

글쓴이는 Heidegger를 알지도 못하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해시키려고 했을까요?

# 2

bold체로 강조해 놓은 내용을 배경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 해놓은 지문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광범위 하게 쓰이는 “일반화 →구체화” 방식으로 서술된 지문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주세요.그러니 배경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요.

Heidegger used the term *Dasein* — “being there” — for the being that exists. He rejected the idea that \_\_\_\_\_. Instead, **he developed a phenomenological view, in which our understanding of things is always in relation to ourselves. For example, if you put on a jumper, it is because the jumper will keep you warm, or you think it will look good on you. It is not because the jumper is made of twisted yarn and is a few millimeters thick.**

[예까지 들어가면서 Heidegger의 Dasein 개념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을 우리 자신과 관계 짓는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applies to knowledge, too. We might read a book about politics because it interests us, or because understanding politics helps us make sense of what we see happening around us. We see it in terms of a tool, or satisfying a need.**

[지식과 관련해서도 우리 자신에게 흥미를 주거나 도움을 주는 지식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eidegger saw the *Dasein* (principally the human “being”) as completely immersed in and part of the world that defines it. No separa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environment is possible. “Being there” means that “there” — our context — is the defining aspect of “being”. We are not shut off from the world in an enclosed mind — which Heidegger calls the “cabinet of consciousness”.**

[세상을 우리 자신과 관계 되어 있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Dasein의 한 측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3

Heidegger used the term *Dasein* — “being there” — for the being that exists. He rejected the idea that there is an external world separate from a conscious observer. Instead, he developed a *phenomenological* view, in which our understanding of things is always in relation to ourselves. For example, if you put on a jumper, it is because the jumper will keep you warm, or you think it will look good on you. It is not because the jumper is made of twisted yarn and is a few millimeters thick. This applies to knowledge, too. We might read a book about politics because it interests us, or because understanding politics helps us make sense of what we see happening around us. We see it in terms of a tool, or satisfying a need. Heidegger saw the *Dasein* (principally the human “being”) as completely immersed in and part of the world that defines it. No separa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environment is possible. “Being *there*” means that “there” — our context — is the defining aspect of “being”. We are not shut off from the world in an enclosed mind — which Heidegger calls the “cabinet of consciousness”.

오히려 **배경지식을 주고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독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배경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나요?

문장 **해석**조차 되지 않는데, 지문과 관련된 배경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답을 찍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가 배경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

## 지문이 어렵다고 느끼는 세 번째 이유

---

4. 수준이 높은 글은 구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문에 포함된 문장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내용 구조가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지문에 포함된 문장의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지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석과 독해가 안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

# 1

아래 문단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굽적이게 만드는 문장이 있다면 골라보세요. 문장의 길이, 그리고 내용 구조의 복잡도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되나요?

## 능률 영어 2 교과서의 문단

As you can see, creative thinking has the power to make many positive changes to the environment. By giving old products more value, we can lessen the amount of waste in a way that is even more eco-friendly than recycling. **So what would you say to Jamie now as he decides what to do with his cans?** Perhaps he could upcycle them to make lanterns, toys, or sculptures for his friends and family. The options are endless, and all he needs is a little creativity to think of them. In the same way, stop and think before you throw something out. Who knows? Maybe you can turn that trash into treasure.

강조해놓은 문장의 내용 구조를 분석해볼까요?

의미묶음의 종류	문장 복잡도에 특별히 기여하는 의미묶음의 예
완전한 술어 묶음	
	what to do with his cans (준동사구, 목적어)
수식 관계 묶음	
부사절	say ← as he decides what to do with his cans
전치사구 묶음	
	say ← to Jamie do ← with his cans

내용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수식 관계 묶음이나 전치사구 묶음 등이 별로 사용 되지 않았습니다.

# 2

## 2022 수능 영어 독해 지문

Precision and determinacy are a necessary requirement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and progress in the sciences is, to a large extent, the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But historical representation puts a premium on a proliferation of representations, hence not on the refinement of one representation but on the production of an ever more varied set of representations. Historical insight is not a matter of continuous “narrowing down” of previous options, not of an approximation of the truth, but, on the contrary, is an “explosion” of possible points of view. It therefore aims at the unmasking of previous illusions of determinacy and precision by the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s, rather than at achieving truth by a careful analysis of what was right and wrong in those previous representations. **And from this perspective,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 may indeed be regarded by the outsider as a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a continuous questioning of \_\_\_\_\_, rather than, as in the sciences an ever greater approximation to the truth.**

문장에 포함된 전치사구 묶음의 수가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치사구 짝이야...그런데 전치사구의 수식대상어 구분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의미묶음의 종류	문장 복잡도에 특별히 기여하는 의미묶음의 예
완전한 술어 묶음	
수식 관계 묶음	
	process ← a continuous questioning of _____ (appositive)
전치사구 묶음	from his perspective → regarded development ← of historical insight regarded ← by the outsider regarded ← as a process process ← of creating every more confusion questioning ← of _____ regarded ← in the sciences regarded ← as an ever greater approximation approximation ← to the truth
병렬구조 묶음	
	as a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questioning ( <b>rather than</b> ) as in the sciences an ever greater approximation to the truth [수식어]



# 3

## SAT Reading Passage에 포함된 paragraph

The nineteenth-century moralist's view on deception was that in general any violation, no matter how small, of the dictates of one's conscience was dangerous. The small lie makes room for the bigger one, which makes room for theft, which makes room for robbery, which makes room for murder. The rapid descent down the slippery slope starts with a minor infraction. The model may be flawed-I know chronic liars who, as far as I know, show no inclination toward progressing to murder-but certainly the impulse to deceive in order to succeed can become as much a habit as suspiciousness or greed, and once it has become routine, conscience is no longer an issue. Lying can become habitual in dealing with others while the moral sense in charge of hindering it atrophies. **The loss of conscience is probably not mourned by anyone who functions without it, but those who have lost the faculty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have been deprived of a humanizing feature and have suffered an impoverishment of their moral life.**

수식 관계 묶음은 물론, 병렬구조 묶음의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해석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식관계 묶음이나 병렬구조 묶음의 수가 늘어난 만큼 문장, 그리고 그러한 문장을 포함한 문단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크게 늘어났고, 내용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의미묶음의 종류	문장 복잡도에 특별히 기여하는 의미묶음의 예
완전한 술어 묶음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절, 목적어) (to tell)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절, 목적어) to harm others (준동사구, 주어)
수식 관계 묶음	faculty ←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anyone ← who functions without it those ← who have lost the faculty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전치사구 묶음	loss ← of conscience mourned ← by anyone functions ← without it form ← of harm deprived ← of a humanizing feature impoverishment ← of their moral life
병렬구조 묶음	mourned by anyone who ... but (mourned by) those who ... [수식어]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o tell)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문장요소] (those who) have lost the faculty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those who) have been deprived of a humanizing feature and (those who) have suffered an impoverishment their moral life [완전한 술어 묶음]

# 4

문장의 내용을 구체화 해주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조합 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묶음의 종류	문장 복잡도에 특별히 기여하는 의미묶음의 예
완전한 술어 묶음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절, 목적어) (to tell)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절, 목적어) to harm others (준동사구, 주어)
수식 관계 묶음	faculty ←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anyone ← who functions without it those ← who have lost the faculty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전치사구 묶음	loss ← of conscience mourned ← by anyone functions ← without it form ← of harm deprived ← of a humanizing feature impoverishment ← of their moral life
병렬구조 묶음	mourned by anyone who ... but (mourned by) those who ... [수식어]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o tell)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문장요소] (those who) have lost the faculty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those who) have been deprived of a humanizing feature and (those who) have suffered an impoverishment their moral life [완전한 술어 묶음]

# 5

수식 관계 묶음과 전치사구 묶음은 문장요소를 구체화 해주지만, 수식 관계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글이 많기 때문에 수식대상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단어가 아닌 구나 절이 수식어로 기능하게 되면 수식어 파악조차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단어가 아닌 **완전한 술어 묶음** 기반의 **준동사구나 절**이 문장요소 기능하면 그 만큼 각 문장요소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많아지고, 구체화 됩니다. 하지만, 문장요소 파악이 힘들어집니다. 해석이 어려워지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의미묶음의 종류	문장 복잡도에 특별히 기여하는 의미묶음의 예
<b>완전한 술어 묶음</b>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절, 목적어) (to tell)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절, 목적어) to harm others (준동사구, 주어)
<b>수식 관계 묶음</b>	faculty ←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anyone ← who functions without it those ← who have lost the faculty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b>전치사구 묶음</b>	loss ← of conscience mourned ← by anyone functions ← without it form ← of harm deprived ← of a humanizing feature impoverishment ← of their moral life
<b>병렬구조 묶음</b>	mourned by anyone who ... but (mourned by) those who ... [수식어]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o tell)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문장요소] (those who) have lost the faculty to tell that it is wrong to harm others, or that deception is one form of harm, (those who) have been deprived of a humanizing feature and (those who) have suffered an impoverishment their moral life [완전한 술어 묶음]

**병렬구조 묶음은 문장요소나 수식어의 수를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만큼 문장이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병렬구조임을 파악하지 못하면 해석 자체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

## 해석이 안되고, 그래서 독해가 안되는 이유와 해결책

---

5. 포함된 정보가 많아서 **구체적**이면 문장이 길어지고, 내용 구조가 복잡 해집니다. **의미묶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해석조차 되지 않습니다. 해석조차 되지 않으니 지문에 대한 독해도 어려워집니다. **구문 패턴**을 암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가지 의미묶음** 파악 능력 향상에 집중하세요.
-

# 1

“Researchers began something.”이라는 간단한 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될 수 있습니다. 구체화 된 후의 문장 내용 구조와 구체화 되기 이전의 문장 내용 구조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사용된 **의미묶음**을 잘 살펴보세요[수식대상어(head)는 bold체로 표시해두었습니다].

---

## 문장 내용의 구체화 과정

---

Researchers began something.

Researchers began to believe that runners are able.

(문장요소 ← to 부정사구, **완전한 술어 묶음**)

Researchers began to believe that runners are **able to adjust leg stiffness**.

(수식어 ← to 부정사구, **완전한 술어 묶음**)

Researchers began to believe that runners are able to **adjust** leg stiffness **prior to foot strike**.

(수식어 ← 전치사구, **전치사구 묶음**)

Researchers began to believe that runners are able to adjust leg stiffness prior to **foot strike based on their perceptions**.

(수식어 ← 분사구, **완전한 술어 묶음**)

Researchers began to believe that runners are able to adjust leg stiffness prior to foot strike based on their **perceptions of the hardness or stiffness of the surface**.

(수식어 ← 전치사구, **전치사구 묶음 + 병렬구조 묶음**)

Researchers began to believe that runners are able to adjust leg stiffness prior to foot strike based on their perceptions of the hardness or stiffness of the **surface on which they are running**.

(수식어 ← 관계절, **완전한 술어 묶음**)

Researchers **gradually began** to believe that runners **are subconsciously** able to adjust leg stiffness **prior to foot strike based on their perceptions of the hardness or stiffness of the surface on which they are running**.

(수식어 ← 부사, **단어**)

---

# 2

## 문장의 내용 구조가 복잡해지는 이유

난이도가 높다, 혹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문**(paragraph 혹은 passage)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문장**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려다 보니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도록 문장을 작성하게 되고, 그러한 정보를 모두 담으려고 하다보니 문장의 내용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길어도 당연히 길어집니다. **단어**가 처리할 일을 **구나 절**이 처리하게 되니까요.

사실, 내용이 구체화 되어 문장이 복잡해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영어 문법은 **내용 구체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단어 대신 **구/절**을 **문장요소**로 활용하는 방법
- 단어 대신 **구/절**을 **수식어**로 활용하는 방법
- **문장요소** 혹은 **수식어**를 **병렬**로 연결하여 문장에 포함시키는 방법

## 해석이 어려운 이유, 그래서 독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와 해결책

해석이 어려운 이유, 그래서 독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문에 포함된 문장의 내용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네 가지 의미묶음의 파악과 조합**에 익숙해지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전한 술어 묶음
- 수식 관계 묶음
- 전치사구 묶음
- 병렬구조 묶음